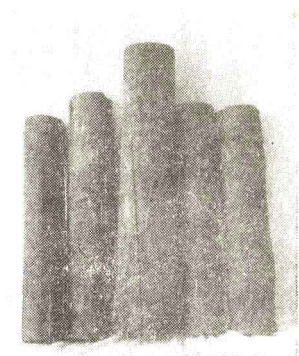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4

결 선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4)

결 전

민 속 출 판 사

책임 편집: 리철준

장 정: 장홍을

책임 교정: 해 순

中国朝鲜族历史足迹丛书(4)

决 战

(朝鲜文)

《中国朝鲜族历史足迹》编辑委员会编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各地新华书店经销

民族印刷厂印刷

开本: 850×1168毫米 1/32 印张: 19 3/8

1991年7月第1版

1991年7月北京第1次印刷

印数: 0001—3,500册 定价: 8.00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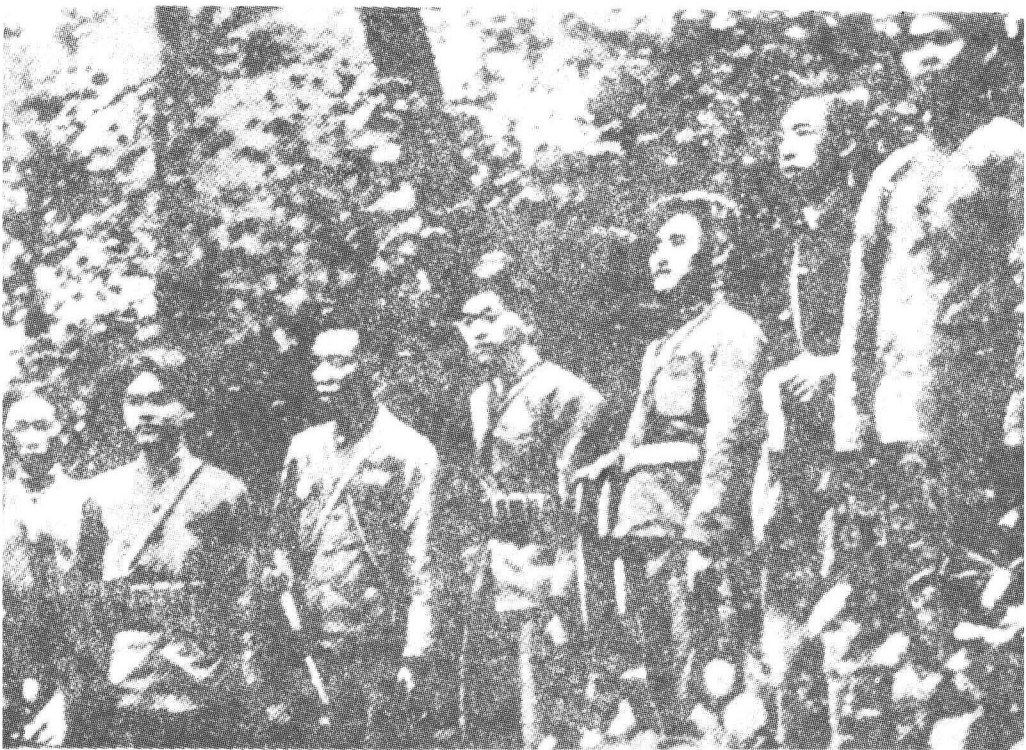
ISBN 7-105-01264-1/K·106

民文(朝7)

中國朝鮮族歷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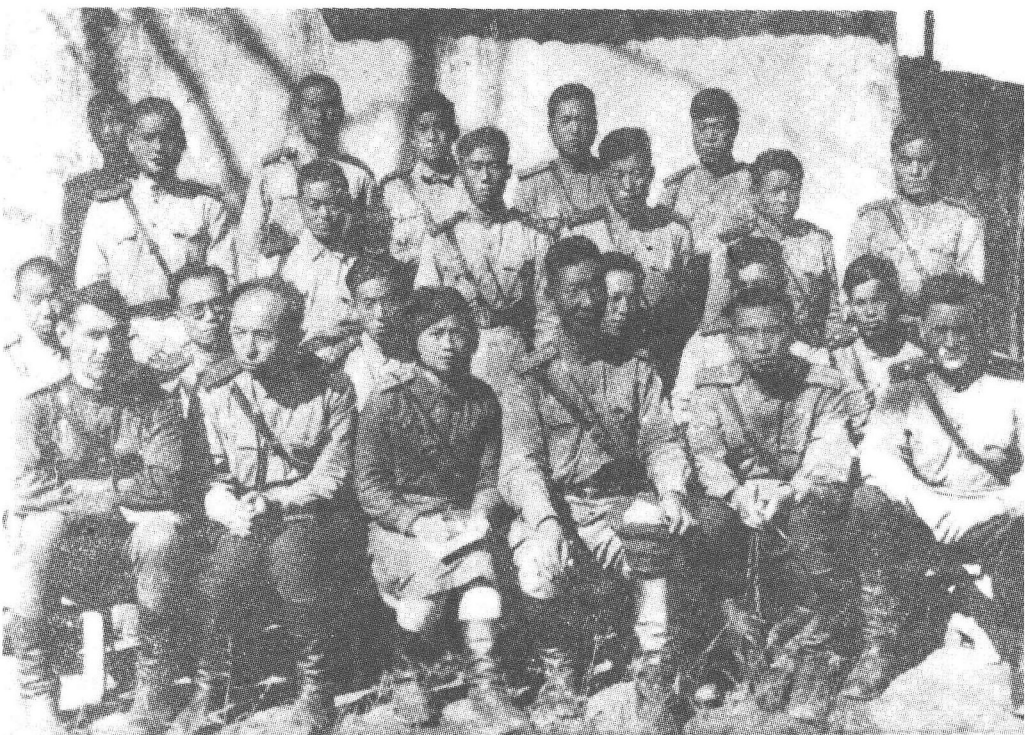
足跡叢書

真一
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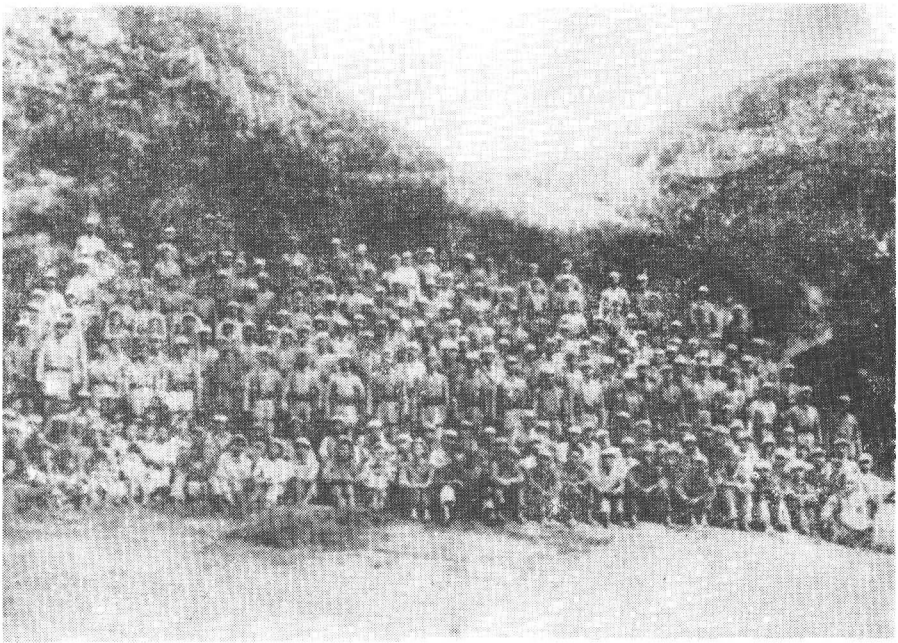


화전빌영에서의 제1로군 투사들(1939년 여름)

국제려단의 지휘관들(19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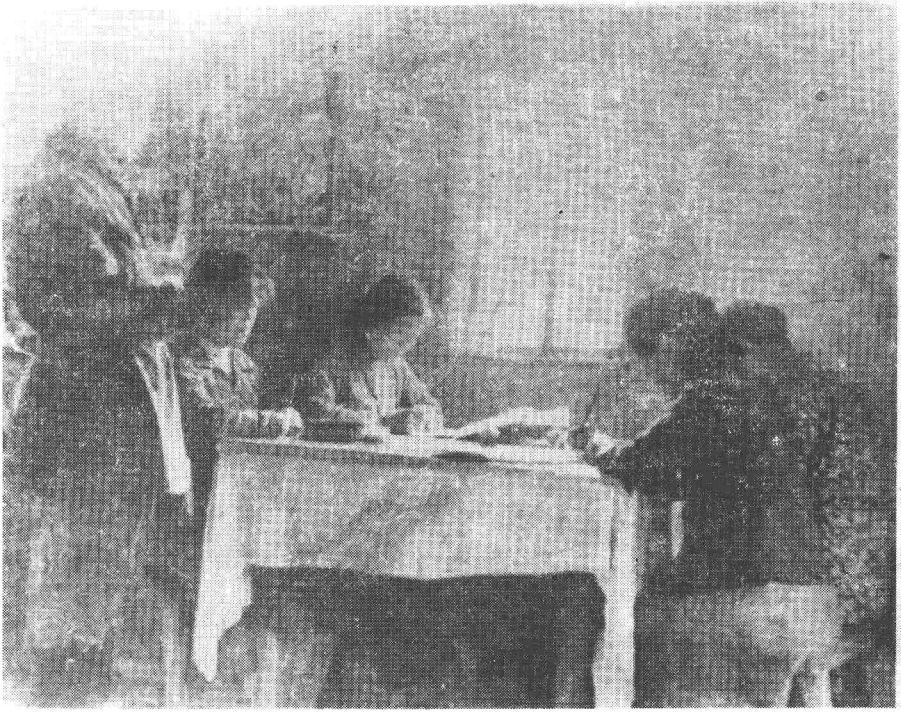


연안 조선의 청년 농정학교의 선생과 학생들



장사에서 조선의 항일선전대 (1938년)

야포동편지에서 학생들의 한일편곡 보전사들



한일편곡 소부대의 초막

일제강점기의 김예정 장군



조선의애국사범 무장



한일표어가 새겨져있는 나무



소부대활동에서 공을 세운 전사에게 발급한 상장

名譽獎狀

第 041 號

茲有呂英俊以英勇果
敢超等技能完成專門
戰鬥任務以資表彰特
此褒獎

褒獎人 王新林

中華民國卅二年九月廿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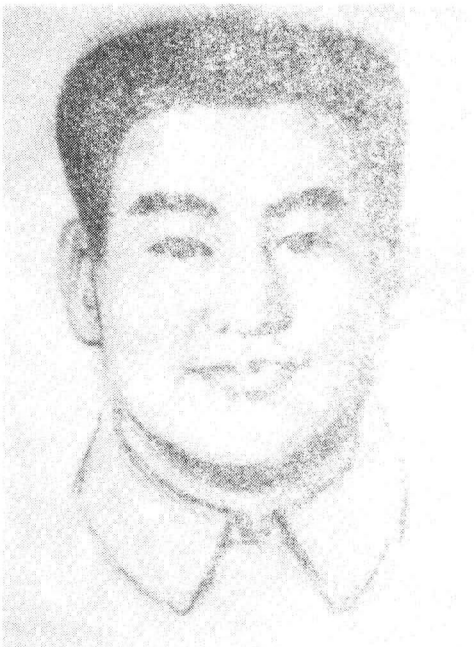
일시정부 경무국장시절의 김구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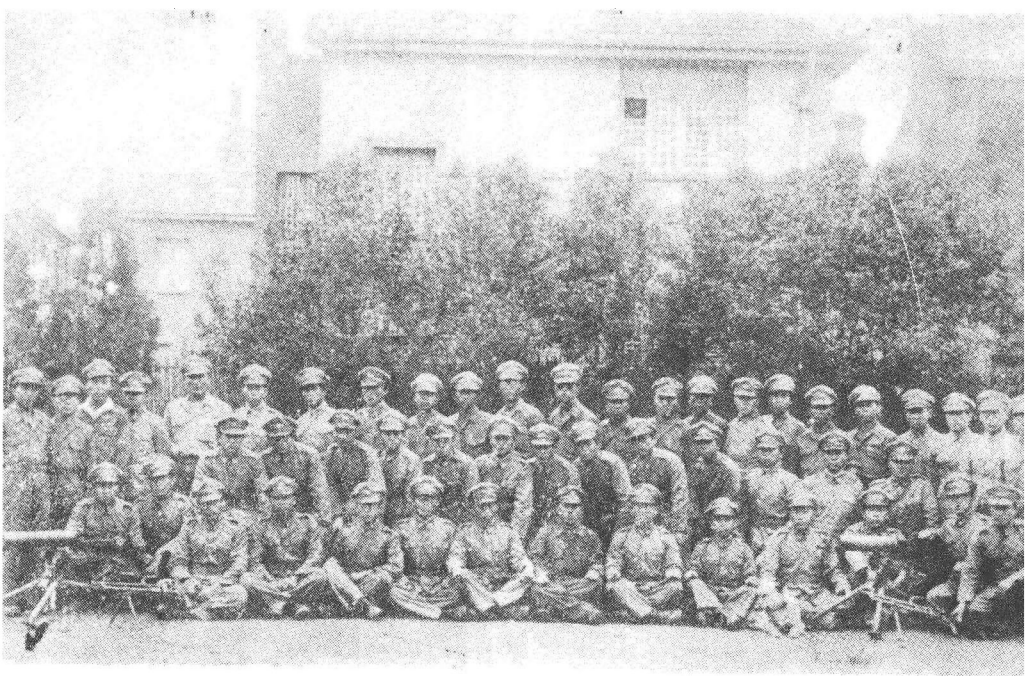


항일련군 제3로군 총참모장, 제3군 군장 허형식

항일련군 제7군 군장 리학복

인민의예술가한락연





평북군의 지휘관과 전사들

혁명적전통교양의 훌륭한 교과서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가 출판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기쁨을 금할수 없다.

중국 조선민족은 근로하고 용감하며 굳세고 열정적이며 혁명적전통을 갖고있는 민족이다. 중국 조선민족은 력대의 반동통치계급들이 실시한 민족차별시정책과 억압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워유구하고 찬란한 문화를 보존하였다. 그들은 형제민족과 함께 피땀으로 동북의 옥토를 개척하였으며 조국의 신성한 변강을 건설하고 보위하였다. 기세 드높았던 토지혁명과 전쟁의 불길이 훔날리던 항일전쟁의 나날에 관내의 혁명대오에는 적지 않은 조선민족들이 있었으며 동북항일련군에는 더욱 많은 조선민족들이 있었다. 그들은 고생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리 당과 한마음한뜻이었으며 여러 민족 인민들과도 한마음이 되어 혁명적영웅주의와 자기희생정신을 보여주었다. 《9.3》항일전쟁승리후 조선민족은 위대한 해방전쟁에 뛰어들어 적과 끝까지 혈전하려는 중화민족의 기개를 떨쳐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위하여 공헌하였다. 공화국이 창건된후에 진행된 항미원조전쟁, 어렵고도 꼭질적인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민족은 조국과 고향을 함께 나누었으며 형제민족들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승리를 거듭하였다.

조선민족은 중국공산당의 령도아래 위대한 애국주의정신을 발양하여 조국을 보위하고 여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지위버릴수 없는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영광스러운 중화민족투쟁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아로새겨놓았다. 조선민족가운데서는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었는데 그들은 중화민족의 영웅보에 광채를 더해주

었다.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실로 피와 눈물의 발자취이며 전투적단결의 발자취이며 끊임없이 승리를 거듭한 발자취이다.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 보여줌으로써 후대들은 어려웠던 창업의 나날들을 돌이켜볼수 있고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에서 용감하게 전진할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조선민족의 대사일뿐더러 또한 여러 민족 인민이 함께 축하해야 할 대사이다.

두가지 문명전설은 서로 갈라놓을수 없는 통일체이다. 혁명적전통교양은 정신문명전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나는 동지들에게 《과거를 잊는것은 배반을 의미한다.》고 한 레닌의 명언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이 《발자취》총서가 중화의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애독되고 전통적교양의 훌륭한 교과서로 될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나는 이 총서의 편찬사업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동지들에게 감사 경의를 드린다.

宋任窮

一九八九年七月廿四日

《중국조선민족발자취》 총서를 내면서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는 관계부문과 사회유지인사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면서 전국 각지의 수많은 동지들의 노력에 의하여 올해부터 연속 출판되게 된다.

중국 조선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다.

중국 조선민족은 형제민족들과 더불어 중국의 번강을 개척하기 위하여 피땀을 흘리었고 일제가 침략의 마수를 이 땅에 뻗치자 항일의 봉화를 높이 들고 피어린 투쟁을 진행하였고 일제들이 땅에서 몰아낸 다음에는 국민당군대와 판가리싸움을 하여 승리를 전취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에는 항미원조전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다른 형제민족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힘과 지혜를 바쳤고 빛과 열을 뿜어왔다.

오늘 우리 나라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나라를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갖춘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은 정신문명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중국 조선민족은 이 땅에 울짙을 박고 뿌리를 내린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변혁하는 생산투쟁과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투쟁 가운데서 감동적이며 눈물겨운 업적들을 쌓았다. 우리들은 그들이 쌓은 업적을 노래하고 그들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책을 편찬하여 출판한다.

독자들은 이 책에 수록된 생동하고 진실한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통하여 빛나는 혁명전통을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게

될 것이며 나라의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바치기 위하여 힘쓰게 될 것이다.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는 모두 8책으로 나누어 출판된다. 제1책에는 조선민족이 중국에 이주한 때부터 1920년대까지, 제2책에는 1920년대부터 1931년 《9.18》사변에 이르기까지, 제3책에는 《9.18》사변이 일어난후부터 1937년 《7.7》사변이 일어나기전까지, 제4책에는 《7.7》사변이 일어난후부터 1945년 《8.15》광복까지, 제5책에는 제3차국내혁명전쟁시기, 제6책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부터 사회주의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제7책에는 사회주의건설이 시작된 때부터 1978년 당중앙11기3차전원회의가 있기전까지, 제8책에는 개혁, 개방 시기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조선민족이 걸어온 발자취가 포괄되어있다.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의 매개 책은 머리말, 각 장절의 내용요지, 력사적화면, 사진 등 4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 책에 중국 조선민족이 걸어온 발자취들을 될수록 진실하게 보여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시간의 촉박과 능력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미흡한 점들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편달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의 편찬사업을 지지하고 관심해주신 인사들과 관계부문들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바이다.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편집위원회

1989년 5월